

새천년의 우유수급동향과 전망



유 철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앞으로 2004년까지 우유 및 유제품의 수급 전망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외환위기 이전 상황으로 빠르게 호전되고 있어 우유 및 유제품의 소비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우유 및 유제품의 총 소비량은 원유환산 연 4.2%씩 증가하고, 국내 원유생산량은 낙농경영의 호전과 생산성 향상으로 연 1.2%씩 증가할 전망이다.

새 천년이 시작되면서 낙농가와 업계관련자들간에는 올해에는 우리나라 낙농산업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나, 기대와 염려가 교차하고 있다.

그러나 새 천년이 시작된다고 짐승이 다른 짐승의 모습으로 바뀌고, 우유와 관련된 모든 상황이 하루밤 사이에, 또는 몇 개월 사이에 몰라보게 달라질까? 새 천년도 누가 뭐라고 하여도 작년과 현재의 상황의 연장이다.

이 글은 근년,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낙농업관련 동향과 이를 바탕으로 금년과 앞으로 2004년까지 우유 수급을 중심으로 전망하고, 앞으로 전개될 주요한 관련 여건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낙농업의 변화를 다른 축종과 비교하면 낙농가수, 사육두수와 산유량 등 업계 동향을 가늠하는데 중심이 되는 지표가 대체로 안정적으로 변동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낙농가수는 지난 1990년에 33천 3백호에서 지난해 9월 조사때에는 14천 9백호로 절반이하로 크게 줄었지만, 같은 기간 중에 젖소수는 544천마리에서 535천마리로 2%미만이 감소하였고, 닭유량은 1990년 1,752

천톤에서 1998년 2,027천톤으로 15.7%증가했다.

1990년 우유 소비량은 1,879천톤, 1인당 우유소비량은 43.8kg이었다. 1990년 초반만 해도 시유소비가 우유소비의 거의 전부여서 우유소비는 거의 자급을 했었지만, 그 이후 소득증가와 식생활이 바뀌면서 수입 유제품을 중심으로 유제품 소비가 증가하여 1998년 우유의 소비량은 유제품소비량을 원유로 환산하여 2,299천톤으로, 1인당 소비량은 49.2kg으로 증가했다. 1990~98년간 우유 소비량은 연 2.5%씩 증가하였고, 1인당 소비량은 연 1.5%씩 증가했다.

작년 우리나라 낙농업관련 동향을 돌아보면, 우리나라 낙농업은 1997년 말에 시작된 외환위기 중에 환율이 단기간에 빠르게 큰 폭으로 오르고, 뒤따라 큰 폭의 사료비 인상으로 낙농경영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다.

소비가 단기간에 크게 줄어 일어난 원유과잉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장려금 지원하에 저능력젖소 도태가 실시되었다. 1998년 7월에는 저능력 젖소를 보다 많이 도태시키기 위하여 체세포수 3등급(50만초과/ml)의 페널티를 -30원/kg에서 -60원/



kg으로 높혔다.

또한 부루세라 파동이 일어나 낙농업계는 다시 큰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환율이 안정되고 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면서 시유 및 유제품의 소비와 원유의 생산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소비가 늘면서 이에 따라 악성분유재고가 크게 감소하였다.

분유재고는 1998년 말 8,369톤에서 1999년 10월 3,000톤 미만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업계가 적정재고 수준이라고 보는 양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업체의 경영이 호전되었다. 원유가격이 인상되고 젖소가격이 크게 회복되어 낙농가의 경영이 전년보다 안정되기 시작하였다.

1999년에는 사육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두당 산유량의 증가로 현재 추정로서는 원유 생산량은 전년도 보다 1.2% 정도 증가한 2,050천톤으로, 소비

량은 2,480천톤으로 전년보다 9% 가량 증가하고, 1인당 소비량은 53.0kg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원유생산 증가요인으로서는 1998년 1월에는 원유가격 인상을 들 수 있다. 원유가격은 외환위기로 환율이 단기간에 급상승하여 배합사료가격이 크게 올라, 이에 따른 생산비 인상폭을 감안하여 18.4% 인상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환율과 수입사료곡물가격이 하향 안정되어 배합사료가격은 여러 차례 떨어져 외환위기 수준으로 낮아져, 원유가격인상의 효과가 가시화되었다. 그 밖에 1999년 10월부터는 원유 체세포 3등급 폐널티도 다시 이전 수준으로 낮추었다. 이에 따라 저능력 젖소 도태두수가 감소하여 원유 생산 증가는 금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우유 소비는 경기침체에 다 원유가격 인상으로 시유 가격

도 인상되어 수개월 동안 우유 소비가 크게 감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유업체 간에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자가격 인하 경쟁의 유발로 소비자가격 하락, 유업체와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들의 낙농가 돕기 우유 소비 촉진 운동, 낙농자조금에 의한 우유소비 촉진 홍보로 우유 소비가 빠르게 회복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1999년에는 유제품 수입도 크게 증가하였다. 전체 수입량을 원유로 환산하면 1999년도 9월까지의 수입량은 314천톤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1999말까지는 400천톤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지분유는 감소한 반면 탈지분유와 모조분유는 수입량이 증가하였으며 치즈 수입이 수요증가로 크게 증가하였다.

금년과 앞으로 2004년까지 낙농의 변화를 전망하여 보면, 낙농가수는 경기회복과 낙농경영호전으로 감소추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젖소 사육두수는 금년에는 작년대비 2.6%가 증가한 549천 마리로 증가하고, 이중 착유우 마리수는 전년대비 4%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유 생산량은 주로 착유우 마리수와 마리당 산유량의 증가로 매년 1.2% 증가하여, 2004년 원유생산량은 2,236천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유의 소비는 경기 즉 소비자

소득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변동하여 왔다. 경기예측기관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과 가까운 미래의 국내 경기를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우유소비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증가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유 총소비량은 금년에는 작년대비 8% 정도 증가한 2,680천톤으로 증가하고, 1인당 소비량은 작년대비 7%가 증가하여 56.7kg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2004년까지 우유 총소비량은 연 4.2% 증가하여, 2004년 우유소비량은 3,160천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량 증가는 주로 유제품의 수입 증가에 의한 것이다.

금년 유제품의 수입량은 외환위기로 위축되었던 소비가 되살아나면서, 작년 수입량보다 40% 이상 증가한 565천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금년 이후 유제품 수입증가율은 다소 둔화되어, 매년 100천톤 미만 증가하고, 연 증가율은 13.5% 씩 증가하여 2004년에는 940천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우유의 자급률은 2000년 79%에서 2004년에는 70%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국내 원유생산량 중 시유 소비 비율이 작년 74%에서 2004년에는 86%로 높아져 국내산 원유가 시

유로 소비되는 양은 해가 갈수록 증가할 전망이다.

앞으로 2004년까지 우유 및 유제품의 수급 전망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외환위기 이전 상황으로 빠르게 호전되고 있어 우유 및 유제품의 소비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우유 및 유제품의 총 소비량은 원유환산 연 4.2%씩 증가하고, 국내 원유생산량은 낙농경영의 호전과 생산성 향상으로 연 1.2%씩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1월에 출범한 낙농진흥회가 금년부터는 원유수급의 원활화와 낙농가 소득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제품의 소비증가는 대부분 수입 유제품의 수입 증가로 충당될 전망이다. 그러나 앞으로 수입 유제품의 수입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될 요인은 첫째는, 유제품 수출국들이 국제무역기구에 제소 중인 우리나라의 모조분유류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국제무역기구의 최종 판정결과이다.

이는 정부가 1995년 10월에 일어난 유업체간 원유의 질에 대한 시비와 시유에서의 항생, 항균 물질검출 보도로 소비자들이 우유에 대한 불신으로 우유소비가 격감하고, 분유재고가 누적된 데다 수입관세가 낮게 책정되어 모조분유류의 수입이 크게 늘어 낙농업계가 큰 피해를 입게 되자 업계의 산업피해구제 신청을 받

아들여, 1997년 3월부터 모조분유류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자, 유제품 수출국들이 국제무역기구에 우리나라의 수입제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제소한 사건이다.

국제무역기구로부터 부당하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금년부터 모조분유류의 수입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입 유제품의 수입량은 위에서 전망하였던 양보다 훨씬 더 증가하여, 우리나라 낙농업계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둘째는, 과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타결 때 농산물 부문은 금년 초부터 다시 협상하기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유제품에 대한 관세인하문제가 제기될 때 정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겠느냐 여부이다.

이러한 앞으로의 여건변동에 대비하고 여건이 불리해질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새천년에도 낙농가들이 해야 할 일은 원유의 생산비 절감과 질 높이기에 더욱 노력해 나아가는 것이다. ☺

〈필자연락처 : 02-962-7312〉

